

# GM 야심작 이쿼녹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비싼 SUV’

(SUV)

## 쉐보레 중형 SUV ‘이쿼녹스’ 판매현장 가보니

가벼우면서 견고한 차체 구조 안정성으로 승부... 반전카드

“고객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뛰어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지엠(GM)이 올해 초 철수설 논란으로 급감한 판매량 회복을 위해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이쿼녹스’를 출시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힘겨운 모습이다.

지난 16일 오후 고양시 화정에 있는 쉐보레 대리점을 찾았다. 주말 가족 단위로 차를 보러 온 손님들이 눈에 띄었다. 이쿼녹스 운전석에 앉아보던 40대 고객 A씨는 “내가 운전하기에는 너무 큰 것 같다. 체적이 작은 사람들은 운전하기 부담스러울 것 같다”며 멋쩍어 했다.

대리점 직원 B씨에 따르면 운전석에 햅틱 시트가 장착돼 위험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진동으로 전달된다. 범퍼 하단에



쉐보레 종로 대리점에 전시된 중형 SUV 이쿼녹스의 모습.

는 센서가 부착돼 있어 양손에 물건을 들었을 경우에도 간단한 다리 동작으로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이쿼녹스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 타사 경쟁작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서다.

쉐보레 종로대리점에서 만난 직원 C씨는 “이쿼녹스에 대한 고객 반응이 좋은 편은 아니다”며 “경쟁 모델보다 비싼 가격 때문에 차량을 찾는 고객이 없다”고 아쉬

워했다.

서대문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직원 D씨는 “국내 완성차 브랜드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편”이라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비싸다는 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쿼녹스의 가격은 차종별로 ▲LS 2900만원 ▲LT 3400만원 ▲프리미어 3800만원선이다. 프리미엄(익스클루시브)의 경우 4000만원대다.

경쟁작으로 꼽히는 현대차 쏠타페, 기아 쏠렌토와 비슷하거나 높은 가격이다. 현대 쏠타페 2.0의 경우 2895만~3945만원대, 기아 쏠렌토 2.0의 경우 2815만~3790만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쏠렌토 2.2디젤의 최대 가격은 3845만원으로 이쿼녹스 프리미어보다 저렴하다. 크기가 비슷한 르노삼성 QM6 2770만~3340만원(2WD 기준)과 비교해도 200만~500만원가량 가격이 높다.

이 때문에 이쿼녹스가 크루즈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2017년 필승카드로 신형 ‘올뉴 크루즈’를 출시했지만 높은 가격으로 실패를 맛봤다. 크루즈의 실패는 군산공장 철수까지 이어졌다.

다만 한국지엠 영업사원들은 이쿼녹스의 최대 장점으로 꼽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D씨는 “이쿼녹스의 최대 장점은 ‘안전’이다”며 “고강성 경량 차체는 충돌 사고 발생 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 운전자와 탑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이쿼녹스는 차체의

80% 이상에 고강력과 초고강력 강판을 채택해 경량화와 차체 강성을 확보했으며 1.6리터 다운사이징 디젤 엔진을 탑재해 경량화했다. 쉐보레 이쿼녹스는 최근 지엠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인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차체구조를 실현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지엠이 전세계에 출시한 14개 신차는 이전 세대 대비 평균 159kg 경량화에 성공했다. 3세대 이쿼녹스도 이전 세대에 비해 약 10%(180kg)의 극적인 감량을 이뤄냈다.

한국지엠이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 출시한 이쿼녹스가 안전성을 앞세워 가격 논란을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쿼녹스는 지난 7일 프레스테이를 시작으로 개최된 부산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뒤 사전계약 없이 판매에 돌입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수입차이다 보니 조금 시간을 두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오는 18~19일 예정된 시승행사 이후 의견을 더 수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BMW 뉴 8시리즈 쿠페 전 측면.

## BMW ‘뉴 8시리즈 쿠페’ 세계 첫 공개

‘M850i x드라이브’ 가장 먼저 출시  
V8 가솔린 탑재... 제로백 3.7초

BMW가 17일 ‘뉴 8시리즈 쿠페’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8시리즈 쿠페는 전장 4843mm, 전폭 1902mm, 전고 1341mm의 체격을 갖췄다. 휠 베이스는 2822mm다. 키드니 그릴은 6각형 형태로 디자인됐다. 액티브 에어 플랩 컨트롤 기능과 에어 브리더가 포함된 에어 커튼으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다.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루프를 선택하면 무게 중심을 더 낮출 수 있다.

길게 세로로 배치된 실내 주요 라인은 시선을 전방으로 향하도록 해 오직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패널 마감재는 센터콘솔과 계기판 사이에만 적용해 스포츠카 스타일을 강조했다.

새롭게 개발된 스포츠 시트는 베르나스카 가족으로 마감됐으며 도어 슬더와 계기판도 가족으로 장식됐다. 50:50 비율의 분할식 뒷좌석 시트는 등받이를 접으면 트렁크 용량을 최대 420리터까지 확장할 수 있다.

8시리즈 쿠페 라인업 중 가장 먼저 출시되는 모델은 새롭게 개발된 V8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M850i x드라이브다. M 퍼포먼스 트윈 파워 터보 기술이 적용된 4.4l(리터) 엔진은 최고출력 530마력, 1800~4600rpm 구간에서 최대토크 76.5kg·m



BMW 뉴 8시리즈 쿠페 실내 모습.

가 나온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 시간(제로백)은 3.7초다.

세그먼트 최초의 디젤 엔진을 탑재한 840d x드라이브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다. 3.0l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은 최고 320마력의 출력과 최대 69.3kg·m의 토크를 발휘한다. 제로백은 4.9초다. 변속기는 8단 스탭트로닉 스포츠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다. 스티어링 휠에 기본 장착된 패들 시프트를 통해 수동 변속도 가능하다.

특히 한층 진보된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최신 BMW OS 7.0을 탑재했다. 스톱 앤 고 기능이 탑재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 및 차선 컨트롤 어시스턴트, 차선 변경 및 이탈 경고, 측면 충돌 방지·회피 보조 장치가 포함된 차선 유지 어시스턴트, 교차 차량 경고 기능이 기본으로 적용된다. 막다른 골목 후진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최대 50m까지 차량이 자동으로 왔던 길을 거슬러 탈출하는 ‘리버싱 어시스턴트’ 기능도 추가됐다.

/양성운 기자

## 서브윈, 공유오피스 사업 뛰어든다

‘플래그윈’ 브랜드 론칭

8월 3개층·600석 규모 강남캠프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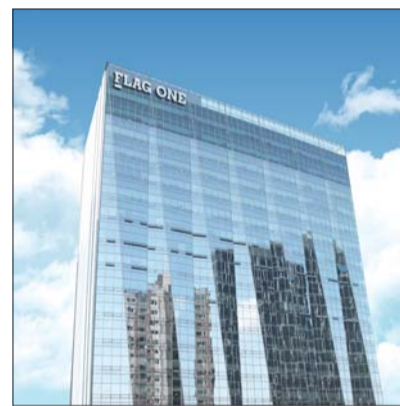
서브윈이 공유오피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서브윈은 서포티브 공유오피스인 ‘플래그윈(FLAG ONE)’ 브랜드를 론칭하고 오는 8월 초 서울 양재역 서브윈 강남빌딩에 3개층, 600석 규모로 ‘플래그윈 강남캠프’를 오픈한다고 17일 밝혔다.

플래그윈은 ‘첫번째이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정의 깃발을 들고 도전하는 베이식캠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플래그윈 강남이 들어서는 서브윈 강남빌딩은 강남권역의 R&D 랜드마크 빌딩으로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양재역과 도보 1분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또 60여개 버스노선이 인접해 강남권역 최고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다.

서브윈은 공유오피스 사업 진출의



플래그윈 서브윈 강남빌딩 전경.

포문을 열면서 입주자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각 층마다 특화된 업무 공간과 산업군별 지원서비스,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차별화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우선 플래그윈에는 기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1~2인 스타트업부터 200인 이상의 기업까지 폭넓게 입주할 수 있다. 또 업계 최대 크기의 사무용 데스크를 비롯해 다양한 테마로 적용된 13개

회의실, 증별 라운지, 명상공간 케이블룸과 LP음악감상공간 하이브룸 등 다채로운 테마의 리프리티 공간도 운영한다.

특히 업계 유일의 250석 규모 대형 강당과 세미나룸을 갖춰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쇼케이스,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도 지원한다.

ICT, 금융, 디자인 등 각 산업군별 입주기업들을 매칭해주는 커스터마이징 매니저 제도와 더불어 법무·세무 상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최대 에듀테크 기업인 ST유니타스의 창업 및 교육 세미나도 매달 무료로 열린다.

이외에도 대기업 수준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입주자 전용 온라인 교육 서비스와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제휴업체들로 구성된 온라인복지물 운영 및 국내 유명 병원 건강검진, 호텔·리조트 할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등 복지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김성호 기자 bada@

## KT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 참가

KT는 17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주최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는 지난 6일 진행된 ‘국토교통기술대전’과 연계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총 7대의 자율주행차가 참여했다. KT는 차체 길이 12m, 차량 폭 2.5m의 45인승 자율주행 버스를 지원했다. 이 차량은 자율주행운행 허가를 받은 최초의 대형버스다. 라이더(Lidar)와 같은 기본적인 차량용 센서를 비롯해 GPS 위치 정보를 보정하는 ‘정밀측위’ 기술과 차량 통신 기술인 ‘V2X(자동차와 사물간 연결)’가 도입됐다.

KT는 자율주행차 국민체감 행사에서

## ‘국토교통기술대전’과 연계 행사 핵심 기술 ‘협력 자율주행’ 선포



김현미(우측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KT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협력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KT

‘협력 자율주행’을 선보였다. 협력 자율주행은 차량이 신호, 주변 차량의 위치 등 외부 교통 정보를 V2X로 수신해 차량 스스로가 위험요소를 인지하는 핵심 자율주행 기술이다.

이외에도 KT는 KT 자율주행 버스 탑승객에게 100여개 채널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멀티채널 스트리밍 서비스’, ‘증강현실(AR) 게임’과 같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서비스를 시연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